

저탄소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 연구

에너지경제연구원
연구위원 안재균

차 례

1. 배경지식
2. 연구배경 및 목적
3. 국내 전력시장 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
4. 주요국 전력시장제도 개선 사례
5. 모형 분석
6. 결론 - 제도개선 제안

1. 배경지식

2. 연구배경 및 목적
3. 국내 전력시장 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
4. 주요국 전력시장제도 개선 사례
5. 모형 분석
6. 결론 - 제도개선 제안

- 3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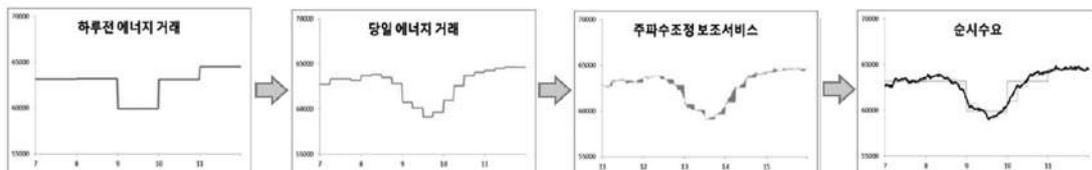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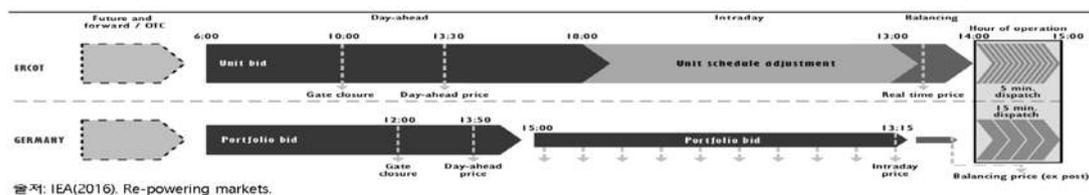
배경지식 - 전력거래 방법

특 성

- 전력은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없으므로 실시간 수급균형이 요구

거래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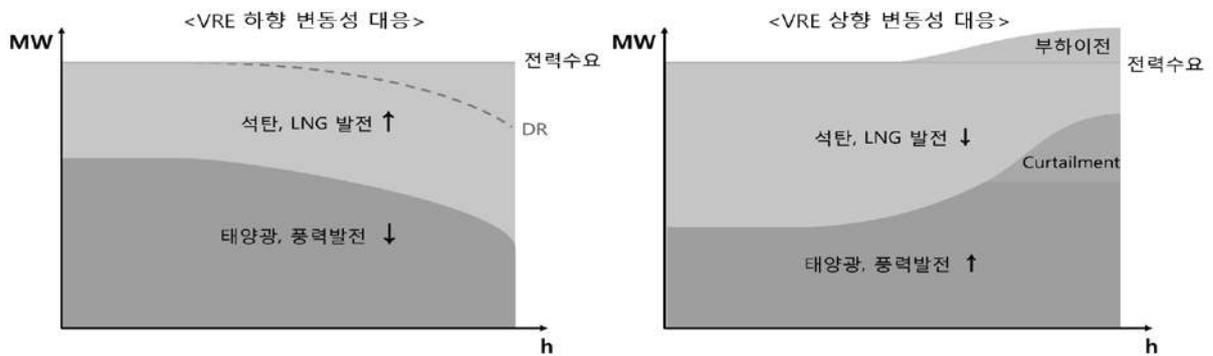
- 에너지 거래 : 하루전(1시간 단위), 당일 및 실시간 (5~15분 단위)
- 보조서비스(주파수조정예비력) : 에너지(평균전력량)와 순시 전력과의 편차에 대한 거래



- 4 -

배경지식 – 전력계통 유연성(Power system flexibility)

| | |
|--------------|---|
| 정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순간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으로 발전과 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|
| 제고 수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력시장제도 개선, 계통운영 선진화(변동적 재생에너지 관제센터), 유연성(DR, GT, ESS, 양수) 자원 확보 |



- 5 -

1. 배경지식
2. 연구배경 및 목적
3. 국내 전력시장 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
4. 주요국 전력시장제도 개선 사례
5. 모형 분석
6. 결론 - 제도개선 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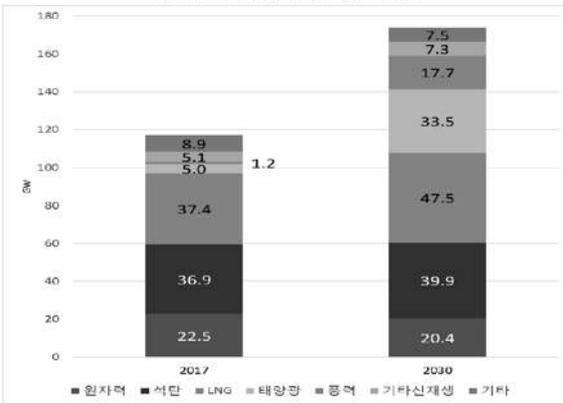
- 6 -

재생에너지 3020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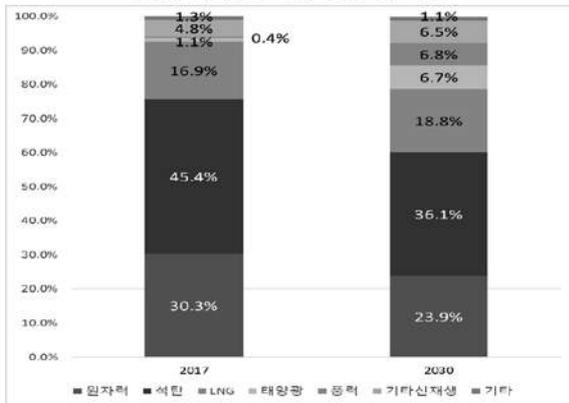
❖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

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전원믹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에너지 믹스(발전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자력 23.9%, 석탄 36.1%, LNG 18.8%, 신재생에너지 20.0%, 기타 1.1% |
| VRE 용량, 비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태양광 용량 : ('17)5.0GW→('30)33.5GW, 발전량 비중 : ('17)1.1%→('30)6.7% 풍력발전 용량 : ('17)1.2GW →('30)17.7GW, 발전량 비중 : ('17)0.4%→('30)6.8% |

<전원별 용량 현황 및 목표>



<전원별 발전량 비중 현황 및 목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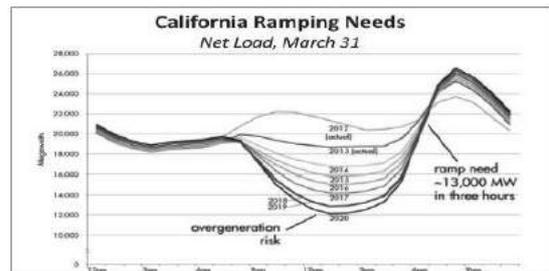


- 7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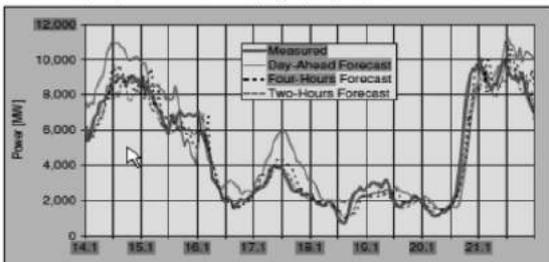
전력계통운영 과제

❖ 변동적 재생에너지 특성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과잉발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VRE 확대 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출력제한(Curtailment), 수요이전, 저장이 요구됨. |
| 출력변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VRE의 출력이 가파르게 증가 또는 감소하여 일관 전원의 빠른 증감발이 요구됨. |
| 불확실성 (예측오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필요 예비력 증가, 2)계획 발전량과 실제 발전량 차이를 유발 CBP, COFF, CON의 정산금 증가 하루전-실시간 시장: DAMAP(Day-Ahead Margin Assurance Payment)의 정산금 증가 COFF, DAMAP는 비발전량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비효율성 야기 |



출처: CAISO(2014), Flexible Resource Adequacy Capacity Requirement Amendment



출처: CE Energy(2012), PJM renewable integration study.

- 8 -

연구목적

❖ 연구목적

- 변동적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전력시스템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의 전력시장 제도는 무엇인가?

<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비계약 가격제도 → 계약기반 가격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의 실제 수급여건을 반영한 시장가격체계 도입을 통해 유연성 자원에 대한 수익성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생에너지 변동성, 예비력계약, 양수운영계약, 열공급계약 및 계통운영계약 등 |
| 당일·실시간 다중 가격제도 도입 추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루 전 시장 이후 기상변화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성을 당일·실시간 시장가격에 반영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확대 |
| 보조서비스 가격제도 도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비력에 대한 적정 가치 보상으로 유연성자원(ESS, DR, GT, 양수)의 전력시장 진입을 유도 |

연구 목표

- 전력시장제도 개선의 타당성 도출
 - ▶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
 - ▶ 실시간 시장(이중 정산제도) 도입
 - ▶ 가격결정 방식 개선

- 9 -

1. 배경지식
2. 연구배경 및 목적
3. 국내 전력시장 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
4. 주요국 전력시장제도 개선 사례
5. 모형 분석
6. 결론 - 제도개선 제안

- 10 -

저탄소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

현행 전력시장(CBP) 특징

❖ 현행 CBP(Cost Based Pool) 시장 특징

| | |
|----------------|---|
| 발전 경쟁시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전부문만 입찰에 참여, 수요입찰 없이 예측수요에 의해 가격결정 판매사업자(한전)은 단일구매자로 가격수용자(Price taker) |
| 비용입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격입찰 대신 실제 변동비용(연료비)에 의한 공급곡선 결정 단기한계비용에 의한 시장가격(SMP) 결정 용량입찰 및 장기한계고정비용에 근거한 별도의 용량가격(CP) 설정 |
| 강제적 시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력거래희망자는 의무적으로 전력거래소에 회원가입 모든 전력거래가 전력시장(전력거래소)를 통해 이루어짐. |
| 시장 구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하루 전 시장만을 운영하며, 별도의 실시간 전력시장은 운영하지 않음. 실시간 거래량과 하루 전 계획량의 차이는 부가정산금(Uplift)으로 정산 |

- 11 -

발전계획

❖ 발전계획 단계

| | |
|-----------------|--|
| 가격 발전 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력수요예측 자료와 발전사업자의 입찰자료를 통해 전력계통내 모든 제약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시간대별 시장 가격만 결정하는 비제약발전계획 |
| 운영 발전 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격발전계획으로부터 각종 제약요소(에버력, 열공급, 제약연료 사용, 지역별 계동안정 및 용동전력 운영한계 등)를 추가로 고려하여 수립, 익일 실시간 급전의 기준이 되는 발전계획 |



출처: 전력거래소(2017), 전력산업인문반 광의자료

| 구분 | 가격결정발전계획 | 운영발전계획 |
|------|---|---|
| 제약조건 | 발전기 특성: 증감발출, 최소 및 최대기동시간 수력 및 양수 물량 | 발전기 특성: 증감발출, 최소 및 최대기동시간 수력 및 양수 물량 송전제약, 전압제약, 에버력제약, 열제약, 연료제약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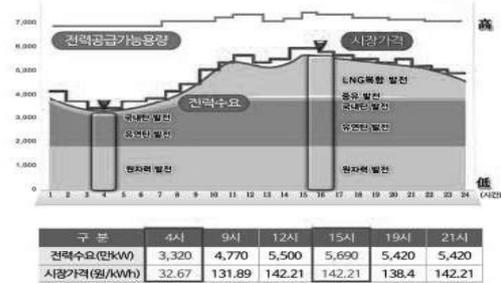
국내 전력시장가격(SMP) 결정방식

❖ SMP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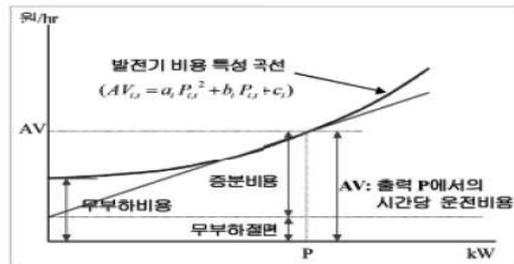
| | |
|-----------------|--|
| 가격 결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격결정 발전계획에 포함된 발전기 중에서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가 SMP를 결정 > 변동비: 증분비용, 무부하비용, 기동비용의 합 |
| CON/COFF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제 운영을 위한 발전계획에는 송전제약, 연료제약, 열공급제약 등은 가격결정 단계에서 제외되며 CON/COFF로 정산 |

❖ 비용 요소

| | |
|---------------|---|
| 증분 비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떤 출력에서 출력 1단위 증가에 대한 연료비 증가분(원/kWh) |
| 무부하 비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전기 출력이 "0"인 상태에서 시간당 소요되는 비용(원/h) - 준고정비 |
| 기동 비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통에서 병해된 후, 다시 계통에 병입하기 까지 비용(원/회) - 준고정비 |



출처: 전력거래소(2017). 전력산업입문반 강의자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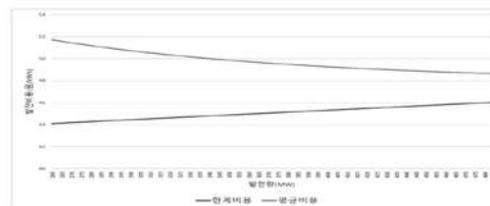
출처: 전력거래소(2017). 전력산업입문반 강의자료

SMP 역진성 문제

❖ 가격 역진성 발생

| | |
|--------------|---|
| 비용 구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계비용 발전량이 증가할수록 비용 증가 평균비용 정격출력에서 비용이 가장 저렴 → 평균비용으로 계산되는 준고정비 향으로 인해 발전량이 감소하여도 가격 상승 현상 발생 |
| 문제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요반응(DR) 자원이 시장 참여 시 수요가 감소하여도 가격 역진성 문제로 시장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. DR이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 초래 → 판매사업자의 DR의 활용 또는 수용 곤란 |

$$IGP_{i,t} = \left[\frac{1}{TLF_i} \left(2a_i P_{i,t} + b_i + \frac{\sum_{l=1}^n (c_l - a_l P_{l,t}^2) + SUC_l}{\sum_{l=1}^n P_{l,t}} \right) \right]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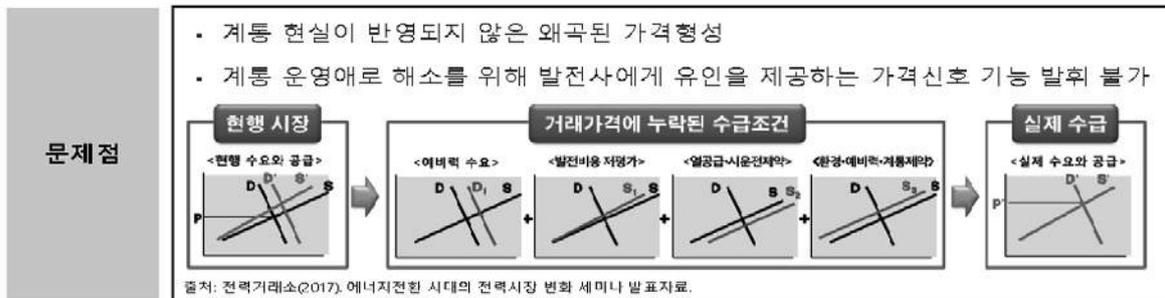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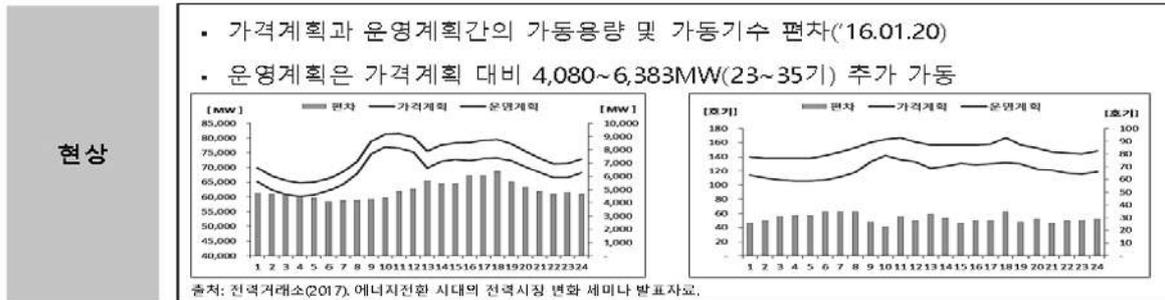
(단위: 원/kWh)

| 모의 날짜 | 2013-01-07 | 2013-01-09 | 2013-03-06 | 2013-03-08 | 2013-05-15 | 2013-05-17 | 2013-07-09 | 2013-07-11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기준 | 172.56 | 175.30 | 164.86 | 164.45 | 148.37 | 153.45 | 164.67 | 166.34 |
| 1MW | 172.89 | 175.30 | 164.86 | 164.47 | 148.37 | 153.45 | 164.73 | 166.31 |
| 10MW | 172.89 | 175.34 | 164.86 | 165.76 | 148.36 | 153.47 | 162.80 | 166.71 |
| 50MW | 172.89 | 175.39 | 164.86 | 164.47 | 148.36 | 153.49 | 164.90 | 166.02 |
| 100MW | 172.89 | 175.40 | 165.78 | 164.62 | 148.50 | 153.58 | 163.04 | 166.43 |

출처: 전력거래소(2014). CBP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 반영 방안 에 관한 연구.

현행 가격결정방식의 문제점

❖ 이원화된 발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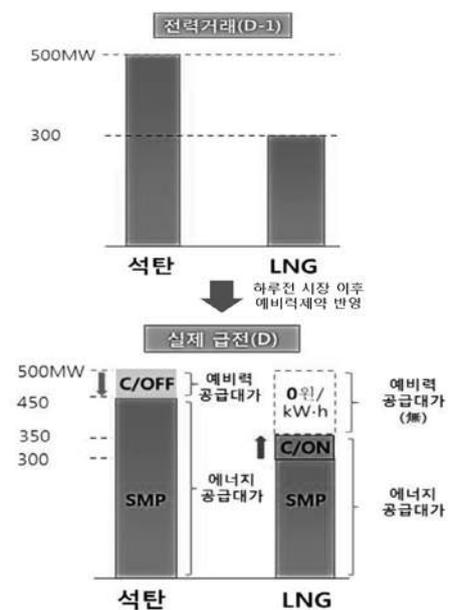


- 15 -

보조서비스 시장 부재의 문제점

❖ CON, COFF 개념과 문제점

| | |
|-------------|---|
| CON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발전 전력량 정산금(Constrained-ON energy payment) >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> 산정수식 : MAX(시장가격×해당 발전량, 변동비) |
| COFF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비발전 전력량 정산금(Constrained-OFF energy payment) >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,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(일종의 기대이익) > 산정수식 : (시장가격×발전하지 못한 전력량) - 변동비 |
| 문제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연성 제공 전원(침두, 신자원) 인센티브 부족 : CON은 변동비만이 지급되므로 초과수익을 실현 불가 • 예비력 제공에 따른 보상 차별 : COFF 지급은 석탄발전 소에게만 수익 제공 |



- 16 -

현행 가격결정방식의 문제점

❖ 에너지과 예비력 동시최적화 부재

| | |
|------------|---|
| 현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에너지 가격은 단순히 발전기의 한계비용으로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➢ 에너지는 예비력을 제공하는 기회 비용으로 결정되는 동시최적화 이론과 배치 • 보조서비스 시장 부재, 화력발전의 출력제약(95%)로 예비력 확보 |
| 문제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그 영향을 반영하지 못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➢ 예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의 SMP와 동일하므로 추가적인 수요 및 공급 자원의 시장참여 한계 • 보상기준 불분명, 응답속도에 비례한 예비력 가격 형성 부재 • 석탄화력 95% 출력제약 시 1차 예비력 과다 확보로 발전비용 증가 |

❖ 실시간(밸런싱) 시장 부재

| | |
|------------|--|
| 현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루 전 시장만 운영, 실제 급전과의 차이는 CON/COFF로 정산 |
| 문제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중정산(Two settlement system) 부재로 급전계획을 이행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. • 실시간 시장 부재로 판매사업자는 부가정산금을 그대로 부담(DR 활용 기회 없음) • 실시간 시장 가격이 부재하므로 실시간 요금제도 설계와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불가 |

- 17 -

1. 배경지식
2. 연구배경 및 목적
3. 국내 전력시장 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
- 4. 주요국 전력시장제도 개선 사례**
5. 모형 분석
6. 결론 - 제도개선 제안

- 18 -

주요국 전력시장제도 개선 사례

❖ 미국 및 유럽 전력시장제도 개선 특징

| 주요 특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하루전-당일-실시간 시장 운영을 통해 시스템 효율 제고 제도개선을 통해 유연성 제공 자원의 보상 강화 변동적 재생에너지 관제센터 및 계통연계 기준 강화 |
|--------------|--|
| 구분 | 내용 |
| 전력시장 제도 개선 | .미국: 실시간 시장 정산주기 단축 .유럽: 당일 시장 개설 .공동: 변동적 재생에너지 출력제한(Curtailment) 규정 수립, 밸런싱 의무부여 |
| 가격결정 방식 개선 | .미국: 전력시장가격은 실제 운전제약을 전량 반영한다는 원칙, 예비력 부족에 대한 회소가격 제도 표준화, MISO는 부가정산금을 최소화하는 ELMP 도입 .유럽: 회소가격결정(Scarcity pricing) 제도 확대(규제적 상한가격제 금지) |
| 전력계통 운영 선진화 | .공동: 변동적 재생에너지 예측 시스템 운영 .텍사스 풍력발전예측시스템,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관제센터 |
| 계통연계 기준 강화 | .공동: 풍력 발전 계통연계 기준(유효 및 무효전력제어능력, 전압제어) |
| 유연성 제공 자원 확보 | .미국 CAISO: Ramping product market 도입, ESS 의무화 .공동: 수요자원 보조서비스로 활용, 분산자원 중개시장 운영 .미국 PJM, CAISO: ESS 전력시장 진입장벽 완화 |

- 19 -

미국 MISO의 가격결정 개선사례

❖ MISO의 Extended Locational Marginal Price(ELMP)

| 도입 목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가정산금(Uplift) 지급 최소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동성능이 빠르고 최소, 최대출력이 동일한 발전기가 계통 병입시에는 가격 결정이 불가능 이러한 발전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최소화하기 시장가격결정 방법 개선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방법 & 단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방법 : Partial commitment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동정지 이진변수를 0~1로 완화시키고 최소출력을 0으로 설정 1단계 (2015년 3월 1일~2017년 4월 30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FSR(Fast start resource) 정의 : 10분 내 병입, 최소운전시간 1시간 이내, 최대 50대(약 2GW) 2단계 (2015년 3월 1일~2017년 4월 30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FSR(Fast start resource) 정의 : 60분 내 병입, 최소운전시간 1시간 이내, 최대 50대(약 2GW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효과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구분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Phase 1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Phase 2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Online FSR 가격 영향 (일반 상황)</td> <td>평균 \$1/MWh 상승</td> <td>평균 \$3/MWh 상승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Offline FSR 가격 영향 (Emergency 상황)</td> <td>평균 \$35/MWh 감소</td> <td>평균 \$60/MWh 감소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부가정산금 영향</td> <td>1% 감소</td> <td>9% 감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Phase 1 | Phase 2 | Online FSR 가격 영향 (일반 상황) | 평균 \$1/MWh 상승 | 평균 \$3/MWh 상승 | Offline FSR 가격 영향 (Emergency 상황) | 평균 \$35/MWh 감소 | 평균 \$60/MWh 감소 | 부가정산금 영향 | 1% 감소 | 9% 감소 |
| 구분 | Phase 1 | Phase 2 | | | | | | | | | | | |
| Online FSR 가격 영향 (일반 상황) | 평균 \$1/MWh 상승 | 평균 \$3/MWh 상승 | | | | | | | | | | | |
| Offline FSR 가격 영향 (Emergency 상황) | 평균 \$35/MWh 감소 | 평균 \$60/MWh 감소 | | | | | | | | | | | |
| 부가정산금 영향 | 1% 감소 | 9% 감소 | | | | | | | | | | | |

※ Offline FSR은 일반상황에서 가격결정 불가; 응급상황에서 계통 병입 시 예비력 부족으로 인한 가격 스파이크 방지

- 20 -

1. 배경지식
2. 연구배경 및 목적
3. 국내 전력시장 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
4. 주요국 전력시장제도 개선 사례
- 5. 모형 분석**
6. 결론 - 제도개선 제안

- 21 -

모형 개요

❖ 모형 개요 및 목적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목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목적 : 제도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비교 ▪ 방법 : 이론 및 소규모 계통모형 통한 결과 도출 → 직관력 제공 |
| 모형 1 (동시최적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현행 이원화된 가격결정방식과 에너지 및 예비력 동시최적화 모형 구축 ▪ 현행 및 제도개선에 따른 발전비용, 가격, 정산금 비교 |
| 모형 2 (실시간시장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실시간(벨런싱) 시장 이론 고찰 및 단순 모형 구축 ▪ 실시간 시장의 기능 분석, 현행 방식과 정산금 비교 |

- 22 -

모형1 : 에너지-예비력 동시 최적화

❖ 에너지-예비력 동시최적화(Co-optimiz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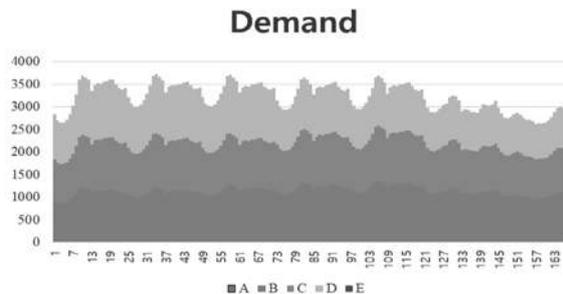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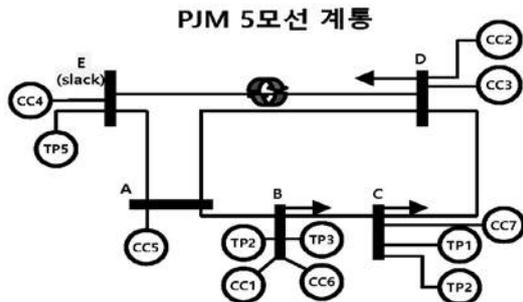
| 개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비력 확보제약 조건을 목적함수에 반영 • 예비력 제약조건은 Cascading 방식과 Independent 방식으로 구분 • 미국 MISO는 Cascading 방식 선택 | | | | | | | |
|--|--|--|-------------|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Cascading | $P_{G1} + P_{G2} = 1300$ $R_{G1}^{res} + R_{G2}^{res} + Shortage1 \geq 50 \quad ; \lambda$ $R_{G1}^{res} + R_{G2}^{res} + R_{G1}^{SR} + R_{G2}^{SR} + Shortage2 \geq 100 \quad ; \mu$ $R_{G1}^{res} + R_{G2}^{res} + R_{G1}^{SR} + R_{G2}^{SR} + R_{G1}^{NSR} + R_{G2}^{NSR} + Shortage3 \geq 150 \quad ; \pi$ $Price_{res} = \lambda + \mu + \pi$ $Price_{SR} = \mu + \pi$ $Price_{NSR} = \pi$ |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small;">Cascade : 계단 폭포, 직렬 등</p> | | | | | | |
| 비교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Cascading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ndependent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 $R_{primary} \geq 50$ $R_{primary} + R_{secondary} \geq 100$ $R_{primary} + R_{secondary} + R_{tertiary} \geq 150$ 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 $R_{primary} \geq 50$ $R_{secondary} \geq 50$ $R_{tertiary} \geq 50$ 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 1. 응답이 빠른 예비력은 낮은 예비력으로 활용 가능 2. 응답 순위 = 예비력 가격 순위 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 1. 개별 예비력을 각각 확보 2. 가격 역진현상 발생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Cascading | Independent | $R_{primary} \geq 50$ $R_{primary} + R_{secondary} \geq 100$ $R_{primary} + R_{secondary} + R_{tertiary} \geq 150$ | $R_{primary} \geq 50$ $R_{secondary} \geq 50$ $R_{tertiary} \geq 50$ | 1. 응답이 빠른 예비력은 낮은 예비력으로 활용 가능 2. 응답 순위 = 예비력 가격 순위 | 1. 개별 예비력을 각각 확보 2. 가격 역진현상 발생 | |
| Cascading | Independent | | | | | | | |
| $R_{primary} \geq 50$ $R_{primary} + R_{secondary} \geq 100$ $R_{primary} + R_{secondary} + R_{tertiary} \geq 150$ | $R_{primary} \geq 50$ $R_{secondary} \geq 50$ $R_{tertiary} \geq 50$ | | | | | | | |
| 1. 응답이 빠른 예비력은 낮은 예비력으로 활용 가능 2. 응답 순위 = 예비력 가격 순위 | 1. 개별 예비력을 각각 확보 2. 가격 역진현상 발생 | | | | | | | |

- 23 -

사례 연구

❖ 모의 계통

| | |
|-----------|--|
| 개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PJM 5모선 모의 계통 적용 • 발전기(공급 측) : 국내 발전기와 유사한 화력 발전 11기 (설비용량 : 6.08GW) • 부하 (수요 측) : 2017년 3월 주간부하 패턴 (최대부하 : 3.73 GW) • 모의 기간 7일 |
|-----------|--|



- 24 -

시나리오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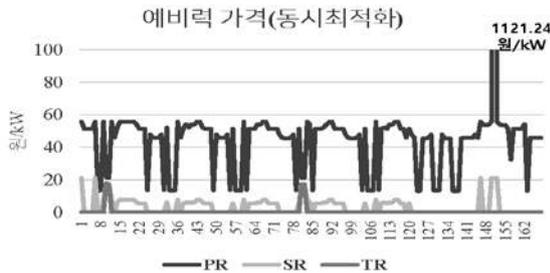
❖ 시나리오 비교

| | 현행 시나리오 | | | | 동시최적화 시나리오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| (1)비계약 발전계획 | | (2)운영 발전계획 | | | |
| 가격 결정 | SMP | | - | | 증분비, ELMP, 1,2차 및 3차 예비력 가격 | |
| 급전 계획 최적화 | 비계약 최적화 문제 | | 계약 최적화 문제 | | 에너지, 예비력 동시 최적화 문제 | |
| | 목적함수 | 발전비용 최소화 | 목적함수 | 발전비용 최소화 | 목적함수 | 발전비용 및 예비력 확보 비용 최소화 |
| | 계약조건 | -수급 균형 -발전기 자체 제약조건 | 계약조건 | -수급균형 -발전기 자체 제약조건 -과적발전 최대출력 제한 (ex.50%) -2차,3차 예비력 확보 | 계약조건 | -수급균형 -발전기 자체 제약 조건 -1차,2차 및 3차 예비력 제약조건 |
| 예비력 계획 | - | | 2,3차 예비력 | 최적화 문제에서 확보 | 계약조건 | - |
| | - | | 1차 예비력 (최적화 아님) | 최적화 이후 각발전기당 9% 출력 여유로써 확보 | | |
| | - | | -1차요구량 확보 불능 시 최적화재수행 -재수행시 최대 출력 제약강제(ex.90%) → 더 많은 출력여유분 확보 | | | |
| 계통 예비력 확보 조건 | - | | Independent 방식 $\sum_i (1차\ 예비력_{i,t}) \geq \text{부하} * 10\%$ $\sum_i (2차\ 예비력_{i,t}) \geq \text{부하} * 10\%$ $\sum_i (3차\ 예비력_{i,t}) \geq \text{부하} * 10\%$ | | Cascading 방식 $\sum_i (1차\ 예비력_{i,t}) \geq \text{부하} * 10\%$ $\sum_i (1차\ 예비력_{i,t} + 2차\ 예비력_{i,t}) \geq 2 * \text{부하} * 10\%$ $\sum_i (1차\ 예비력_{i,t} + 2차\ 예비력_{i,t} + 3차\ 예비력_{i,t}) \geq 3 * \text{부하} * 10\%$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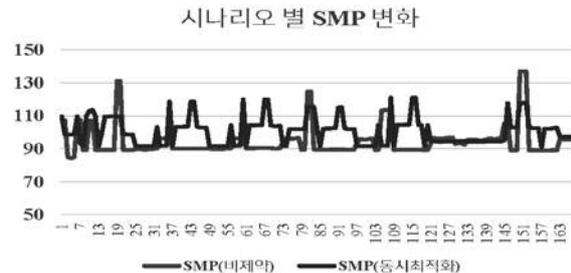
- 25 -

결과 - 예비력, 에너지 가격

❖ 예비력, 에너지 가격 비교



| 구분 | 1차 예비력 (PR) | 2차 예비력 (SR) | 3차 예비력 (TR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평균 가격 (1000원/kWh) | 49.95 | 3.63 | 0.41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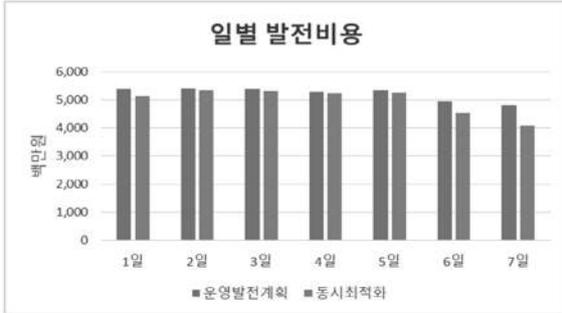
| 구분 | 비계약 발전계획 | 동시최적화 | 효과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평균 SMP | 94.57원/kWh | 100.81원/kWh | ▲ 6.24원/kWh (+6.60%) |
| 평균 증분비 | 83.53원/kWh | 85.97원/kWh | ▲ 2.44원/kWh (+2.92%) |

- 26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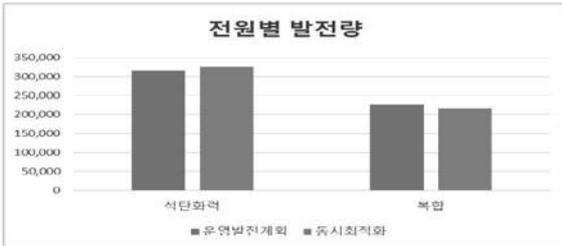
저탄소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

결과 - 발전비용 및 전원별 발전량

❖ 발전비용 및 발전원별 발전량 비교



| 구분 | 발전비용(백만원) | | 효과 |
|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운영발전계획 | 동시최적화 | |
| 1일 | 5,371 | 5,129 | ▼ 243 |
| 2일 | 5,393 | 5,339 | ▼ 54 |
| 3일 | 5,368 | 5,313 | ▼ 55 |
| 4일 | 5,279 | 5,229 | ▼ 50 |
| 5일 | 5,318 | 5,264 | ▼ 54 |
| 6일 | 4,922 | 4,527 | ▼ 395 |
| 7일 | 4,810 | 4,078 | ▼ 732 |
| 계 | 36,461 | 34,879 | ▼ 1,582 (4.34%) |



| 구분 | 발전량(MWh) | | 효과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운영발전계획 | 동시최적화 | |
| 석탄화력 | 315,896 | 324,963 | ▲ 9,067 |
| 복합화력 | 226,417 | 217,350 | ▼ 9,067 |

- 27 -

결과 - 정산금

❖ 정산금 비교

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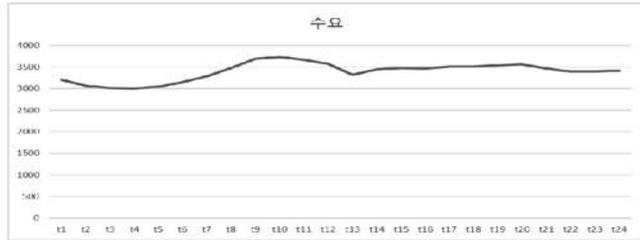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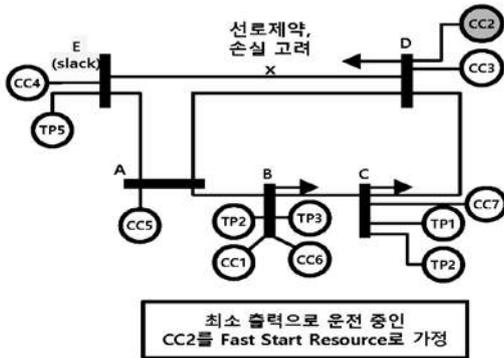
- 현행 시나리오 정산 : SEP(SMP) + CON + COFF
 - 동시최적화 시나리오 정산 : SEP(증분비) + 일괄지불금 + 예비력 정산금
- ※ 일괄지불금(Make Whole Payment, MWP) : 발전사가 기동비용, 무부하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정산금

| 구분 | 현행 시나리오 | | | | 동시최적화 시나리오 | | | | | 시나리오 비교 차이 | |
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SEP 정산금 | CON 정산금 | COFF 정산금 | 계 | SEP 정산금 | PR 정산금 | SR 정산금 | TR 정산금 | 일괄지불금(MWP) | | 계 |
| 1일 | 7,667 | 911 | 611 | 9,189 | 6,985 | 375 | 63 | 7 | 171 | 7,601 | ▼1,588 |
| 2일 | 7,438 | 593 | 242 | 8,273 | 6,985 | 352 | 29 | 0 | 260 | 7,626 | ▼647 |
| 3일 | 7,422 | 566 | 239 | 8,227 | 6,952 | 338 | 28 | 0 | 264 | 7,582 | ▼645 |
| 4일 | 7,564 | 616 | 190 | 8,370 | 6,951 | 364 | 48 | 7 | 221 | 7,591 | ▼779 |
| 5일 | 7,675 | 633 | 196 | 8,504 | 6,887 | 344 | 26 | 0 | 269 | 7,526 | ▼978 |
| 6일 | 6,902 | 1,389 | 1,225 | 9,516 | 5,930 | 255 | 0 | 0 | 333 | 6,518 | ▼2,998 |
| 7일 | 6,624 | 369 | 296 | 7,289 | 5,778 | 634 | 24 | 0 | 211 | 6,647 | ▼642 |
| 계 | 51,291 | 5,076 | 3,000 | 59,367 | 46,468 | 2,663 | 217 | 13 | 1,729 | 51,091 | ▼8,276 (-13.94%) |

- 28 -

ELMP 효과 분석

❖ ELMP 모의



| | ...t16 | t17 | t18 | t19 | t20 | t21 | t22... |
|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CC2 | | | | 56 | 56 | | |
| CC4 | 786 | 823 | 822 | 807 | 819 | 786 | 715 |
| CC5 | 725 | 725 | 725 | 725 | 725 | 725 | 725 |

❖ 가격 결과

| | t1 | t17 | t18 | t19 | t20 | t21 | 평균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충분비 | 89.17 | 82.43 | 82.43 | 82.41 | 82.42 | 82.39 | 83.9 |
| SMP | 97.66 | 89.36 | 89.36 | 89.34 | 89.36 | 89.32 | 92.42 |
| ELMP | 89.17 | 82.43 | 82.43 | 89.5 | 95.54 | 82.39 | 86.23 |

- 29 -

ELMP 효과 분석

❖ 에너지 가격 역진성 모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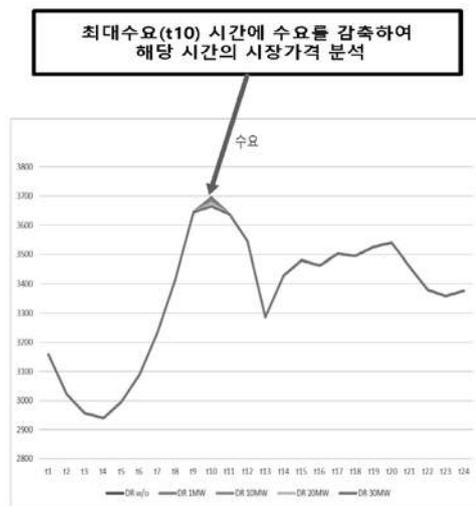
(단위: 원/kWh)

| 구분 | w/o 감축 | 수요 1MW 감축 | 수요 10MW 감축 | 수요 20MW 감축 | 수요 30MW 감축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충분비 | 90.03 | 90.02 | 89.99 | 89.96 | 89.92 |
| SMP | 113.77 | 113.83 | 114.36 | 114.97 | 115.61 |
| ELMP | 96.02 | 96.02 | 95.98 | 95.95 | 95.91 |

평균비용 향으로 인한 역진성 발생
(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 증가)
(※ 한계발전기 동일)

(단위: 원/kWh)

| 구분 | w/o 감축 | 수요 1MW 감축 | 수요 10MW 감축 | 수요 20MW 감축 | 수요 30MW 감축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한계비용 | 90.03 | 90.02 | 89.99 | 89.96 | 89.92 |
| 평균비용 | 23.74 | 23.81 | 24.37 | 25.01 | 25.69 |
| SMP (한계비용+평균비용) | 113.77 | 113.83 | 114.36 | 114.97 | 115.61 |



- 30 -

모의 결과 요약

❖ 모의 결과 정리

주요 결과

- 현행 이원화된 가격결정방식은 부가정산금(CON, COFF) 증가로 인해 총정산금 증가 초래
 - 동시최적화 방식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만 최적자원배분을 통해 총 발전비용 감소 효과 발휘
 - 반면에 증분비, ELMP 방식은 일괄보조금(MWP) 증가 초래 → 피크 발전기 수익 악화
- ※ 실제 주요국의 전력시장은 가격입찰방식으로 운영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발전 비용 | 정산금 | | | |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전력 구매비용 (A) | 예비력 구매비용 (B) | 부가정산금 (C) | 일괄지불금 (D) | 총정산금 (A+B+C+D) |
| 현행 | SMP | 36,461 | - | 8,076 | - | 59,397 |
| 동시 최적화 | SMP | 34,879 | 2,893 | - | 327 | 58,023 |
| | 증분비 | 34,879 | 2,893 | - | 1,729 | 48,197 |
| | ELMP | 34,879 | 2,893 | - | 1,407 | 49,337 |

- 31 -

모형2 : 실시간(밸런싱) 시장 이론

❖ 실시간(밸런싱) 시장 이론 정리

가격 결정

- 초과 수요($Q_{DA} < Q_{RT}$)
 - > 하루전 시장 가격(P_{DA}) < 실시간 시장 가격(P_{RT})
- 초과 공급($Q_{DA} > Q_{RT}$)
 - > 하루전 시장 가격(P_{DA}) > 실시간 시장 가격(P_{RT})

이중 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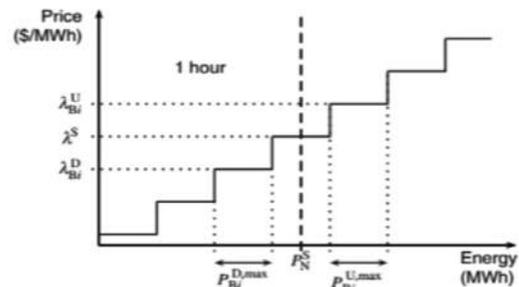
- 하루전 시장 계약량이 실시간 시장의 발전(수요)량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실시간 시장 가격으로 정산
- 정산 수식 = $Q_{DA}P_{DA} + (Q_{RT}-Q_{DA})P_{RT}$
- ※ 발전사는 수입, 판매사는 지불

효과

- 발전사 : 실시간 시장 가격에 따라 급전을 조정할 유인 발생, 이중 정산으로 하루전 시장의 계획 발전량을 준수할 의무 발생
- 판매사 : 하루전 시장의 예측 수요 준수, 실시간 시장에서 수요반응을 활성화할 유인 발생
- 종합적으로 하루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의 차이를 줄여 관련 정산금을 감소시킴.

필수성

- 가장 비용효과적인 계통 운영 수단
- 실시간 시장가격 기반 선도계약 및 투자의사결정



출처: Moraes, JM. et. al.(2017). Integrating renewables in electricity markets.

$$\begin{aligned}
 & \text{Min}_{P_{Bi}^U, P_{Bi}^D, P_{Dk}^U, P_{Dk}^D} \sum_{i \in \mathcal{B}_B} \lambda_{Bi}^U P_{Bi}^U - \lambda_{Bi}^D P_{Bi}^D + \sum_{k \in \mathcal{D}_C} \lambda_{Dk}^U P_{Dk}^U - \lambda_{Dk}^D P_{Dk}^D \\
 & \text{s.t. } P_B^S + \sum_{i \in \mathcal{B}_B} P_{Bi}^U - P_{Bi}^D = P_N^B + \sum_{k \in \mathcal{D}_C} (P_{Dk}^D - P_{Dk}^U); \quad \lambda^B, \\
 & 0 \leq P_{Bi}^U \leq P_{Bi}^{U, \max}, \quad \forall i, \\
 & 0 \leq P_{Bi}^D \leq P_{Bi}^{D, \max}, \quad \forall i, \\
 & 0 \leq P_{Dk}^U \leq P_{Dk}^{U, \max}, \quad k \in \mathcal{D}_C, \\
 & 0 \leq P_{Dk}^D \leq P_{Dk}^{D, \max}, \quad k \in \mathcal{D}_C.
 \end{aligned}$$

출처: Moraes, JM. et. al.(2017). Integrating renewables in electricity markets.

- 32 -

모형2 : 실시간(밸런싱) 시장 모형

❖ 전제

| 하루전 시장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Variable | | Value |
| P^S (MWh) | Unit B1 | 50 |
| | Unit B2 | 20 |
| | Unit B3 | 0 |
| | Unit U1 | 40 |
| | Unit U2 | 30 |
| | Load D1 | 40 |
| | Load D2 | 100 |
| λ^S (\$/MWh) | | 20 |

| 밸런싱 단계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Up-regulation | | |
| Participant | P^B (MWh) | $P^B - P^S$ (MWh) |
| Unit U1 | 50 | 10 |
| Unit U2 | 20 | -10 |
| Load D1 | 35 | -5 |
| Load D2 | 120 | 20 |
| Down-regulation | | |
| Participant | P^B (MWh) | $P^B - P^S$ (MWh) |
| Unit U1 | 65 | 25 |
| Unit U2 | 25 | -5 |
| Load D1 | 22 | -18 |
| Load D2 | 120 | 20 |

| Up-regulation 입찰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Unit | λ^U (\$/MWh) | $P^{U,max}$ (MWh) |
| B1 | - | - |
| B2 | 30 | 10 |
| B3 | 50 | 50 |
| Demand | | |
| Demand | λ^U (\$/MWh) | $P^{U,max}$ (MWh) |
| D1 | 22 | 5 |
| D2 | 24 | 5 |

| Down-regulation 입찰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Unit | λ^D (\$/MWh) | $P^{D,max}$ (MWh) |
| B1 | 8 | 40 |
| B2 | 15 | 10 |
| B3 | - | - |
| Demand | | |
| Demand | λ^D (\$/MWh) | $P^{D,max}$ (MWh) |
| D1 | 16 | 5 |
| D2 | 19 | 10 |

Source: Jeon, J.M. et al. (2017), "Designing a new electricity market in Korea"

모의 결과 요약

❖ 모의 결과 정리

| 밸런싱 단계시 초과수요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구분 | CBP | DA-RT | |
| | | w/o DR | DR |
| DA가격(원/kWh) | 20 | 20 | 20 |
| RT가격(원/kWh) | - | 25 | 23 |
| 전력구매비용 | 1,400 | 1,775 | 1,630 |
| 부가정산금(CON) | 300 | - | - |
| 총 비용 | 1,700 | 1,775 | 1,630 |
| 평균비용(원/kWh) | 11.0 | 11.5 | 10.9 |

| 밸런싱 단계시 초과공급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구분 | CBP | DA-RT | |
| | | w/o DR | DR |
| DA가격(원/kWh) | 20 | 20 | 20 |
| RT가격(원/kWh) | - | 8 | 15 |
| 전력구매비용 | 1,040 | 1,248 | 1,355 |
| 부가정산금 | COFF | 256 | - |
| | DAMAP | - | 28 |
| 총 비용 | 1,296 | 1,276 | 1,379 |
| 평균비용(원/kWh) | 9.13 | 8.99 | 9.01 |

주요
결과

- 현행 시장에서는 실시간 시장 부재로 밸런싱 단계에 DR 작동 불가
- CON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DA-RT시장은 전력구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(한편으로는, 유연성 제공 자원 보상 강화) DR이 작동하여 평균비용 하락 가능
- COFF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시간 가격 부재로 과다 보상 소지 발생
 - ※ COFF : (DA계획대비 미발전량)×(DA가격-변동비)
 - ※ DAMAP : (DA계획량 - RT발전량)×(RT가격-DA 입찰가)

1. 배경지식
2. 연구배경 및 목적
3. 국내 전력시장 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
4. 주요 선진국의 전력시장제도 분석
5. 모형 분석
6. 결론 - 제도개선 제안

- 35 -

결론 - 제도개선 제안

보조서비스 시장 도입

- 변동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예비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
- 응동이 빠른 예비력에 대한 보상 강화로 유연성 자원 시장진입 유도
- 에너지와 예비력이 상호 연계된 가격 신호 제공을 위해서는 에너지-예비력 동시최적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바람직

실시간 시장 도입

- 변동적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으로 CON/COFF 정산금 증가가 불가피
- 실시간 시장 도입으로 관련 정산금 감소와 유연성 자원 보상 강화 가능
- 판매사의 수요입찰: 독점판매구조에서 대규모 수용가의 참여 유도 필요, 현행 구조에서는 수요입찰을 낮게 할 유인을 가지므로 예측오차 허용범위 초과 시 페널티 검토 필요(부록 미국 FERC 제도 예시)

가격결정 방식 개선

- 역신성 개선을 위해 현행 SMP에서 증분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나,
- 동 방식은 일괄지불금(MWP)가 증가하므로 가격 입찰 방식을 통해 발전서의 적정 마진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 고려
- 가격 입찰 도입 시 시장감독 체제 구축(부록 PJM 제도 예시)

- 36 -

부록

❖ 미국 FERC 페널티 제도

<FERC 수급불균형 페널티 제도>

| 구분 | 시간대별 오차범위(+/-) | 정산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Tier 1 | 15%이내 (2MW이하) | -매월 상계 -매달 말일 증분비용 100%로 정산 |
| Tier 2 | 15 ~ 75% (2 ~ 10MW) | -양의 편차 : 증분비용의 90%로 정산 -음의 편차 : 증분비용의 110%로 정산 |
| Tier 3 | 75%이상 (10MW이상) | -양의 편차 : 증분비용의 75%로 정산 -음의 편차 : 증분비용의 125%로 정산 |

❖ 미국 PJM 시장감시 제도

- 발전기별 기준비용 +10% 설정
- 시장기반입찰 및 비용기반입찰 2개 입찰 제출
- 시장지배력 완화를 위해 Structural tests 시행
 - 1단계 : 시장정산가격이 \$91.87/MWh 초과 시 입찰가와 과거 입찰가 비교
 - 2단계 : 입찰가가 기준가격의 200%이상, 기준가보다 100\$ 이상 시 조사
 - 3단계 : 시장정산가격 200\$ 이상 또는 50\$ 상승 시 조사

- 37 -

감사합니다.